

2018 1학기 Aalborg University 교환 보고서

안녕하세요! 2018 1학기 Aalborg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건설환경공학부 박소윤입니다. 사실 비자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의 경우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혹시라도 궁금한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교환학생을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1. 캠퍼스

AAU의 경우 Aalborg에 본교를, Esbjerg와 Copenhagen에 분교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 중 Copenhagen 캠퍼스로 교환을 다녀왔습니다. Copenhagen 캠퍼스의 경우 덴마크의 수도에 위치해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교인 만큼 캠퍼스도 작고 교환학생도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교환학생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지 않구요ㅠㅠ Esbjerg캠퍼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교환학생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본교인 Aalborg캠퍼스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2. 기숙사

AAU Copenhagen 캠퍼스는 2개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숙사의 수보다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리 학교측에 문의를 하셔야 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Albertslund 에 위치한 DIK 이고, 다른 하나는 Tingbjerg 에 위치한 Kollegiet Tingbjerg 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한국과는 기숙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요. 학교안에 기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여러개의 기숙사가 있고, 학교를 통해서 배정받는 시스템이라 기숙사 안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KU, DTU에 재학중인 친구들과 같은 기숙사를 썼는데요,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통학하기 매우 힘들었어요ㅠㅠ DIK와 Kollegiet Tingbjerg 모두 학교까지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중간에 버스나 트레인을 한번 갈아타셔야 해요! 사실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시는게 통학하기에는 훨씬 편하겠지만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2월 한 달 동안 비용이 비교적 저렴했던 DIK를 배정받아 살았는데, 기숙사 일부 방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생겨서 바로 학교측에 메일을 보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3월부터 Kollegiet Tingbjerg에서 살게 되었어요! 두 기숙사를 짧게 비교하자면 시설이나 주변 분위기 모두 Kollegiet Tingbjerg 가 월등히 좋습니다. DIK의 경우 주방이 정말 더럽고, 주변동네 치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를 선택하시려면 Kollegiet Tingbjerg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또 Kollegiet Tingbjerg의 경우 주방이 거실같은 느낌이라 같은 플랫 친구들을 마주치기도 쉽고 가족같이 지낼 수 있어요!

3. 외국인 친구

저는 교내 Friday bar에서 volunteer을 하면서 학교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친구들과 공원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 코펜하겐 시내를 관광하거나 한식당에 가서 한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생각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K-pop이나 K-drama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친해지기 좋습니다!

또 기숙사친구들과 주방에서 음식도 해먹고, 월드컵기간에는 둘러앉아서 축구응원도 하곤 했는데 기숙사의 경우 저에게는 정말 실 수 있는 휴식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때는 무엇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외국인 친구들도 처음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어색하더라도 용기있게 다가주세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을거예요.

4. 영어

사실 AAU는 토폴 88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지만 토폴점수와 실질적인 회화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인영어시험 점수는 높았지만 한국식영어에 익숙해져 있는 케이스였고, 처음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는 제 영어실력에 낙담하기도 했어요. 물론 덴마크에서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교환학생의 한 과정이겠지만 영어회화를 미리 능숙하게 해놓으시면 적어도 영어로 우울해 할 일도 없고 친구들과 처음 만나도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특히 AAU만의 수업 방식인 PBL의 경우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심도있게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화를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5. 여행

저는 교환학생 기간동안 유럽 10 개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유럽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유럽 교환학생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 라고 생각해요. 덴마크의 경우 휴일이 많아서 틈틈이 여행을 다녀오기 좋아요! 특히 코펜하겐의 경우 항공편이 정말 잘 되었어서 웬만한 나라는 3시간 이내로 갈 수 있고 공항도 시내와 가까워서 여행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항공권만 3주 전쯤 미리 예매해놓으면 저렴한 가격에 근처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어요. 수업 스케줄과 휴일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여행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덴마크에서의 6개월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여러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내적으로도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신 공대 대외협력본부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